

문인 시각전

10월 14일까지 영인문학관

작가적 상상이란 현실 속에서 사라진 것들, 혹은 부재하거나 결핍되어 있는 것을 마음속에 그려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이유로 문인들은 이따금 자신의 글을 시각 언어로 형상화하기도 한다. 언어의 이미지를 시각 미디어를 통하여 표현하는 경우다. 더구나 옛날에는 글과 그림의 경계가 오늘날처럼 명확하지 않아서 같은 붓으로 글씨를 쓰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서화일체의 세계다. 활자문화가 생겨나자 이러한 세계는 사라졌다. 하지만 상상력의 원천에서 그것들이 한데 얽혀 문인화나 서예로 표출되기도 한다. 단순한 여가로서가 아니라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이 시각예술로 형상화되는 것이다. 문인들의 서예와 그림은 아무래도 기교면에서 전문가들보다 뒤질 수밖에 없지만, 언어표현을 다른 장르의 표현양식으로 보완한다는 점에서 색다른 의미가 있다.

만해 한용운 스님의 필적을 가까이

서화에 담은 작가들의 상상력

만해 스님·서정주 시인 유품 전시 게오르규 등 외국문인 육필 '감상'

서 접하고, 서정주 시인의 육성이 느껴지는 자필서한에, 조병화시인의 멋드러진 유포까지를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서울 평창동 영인문학관이 준비한 기획전 '문인 시각전(文人 視 覺 展)'이 바로 그것이다. 현대 한국문학의 대표 작가들의 친필 서한과 미술 작품, 유품을

한데 모은 이 전시는 1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한 달간 계속된다.

이번 전시회의 자료들은 1979년에 관장인 강인숙씨가 건국대에서 열린 '문인필진 전시회'를 전후해 수집한 것을 근간으로, 작가들에게 개인적으로 기증받아 소장해 온 것들이다. 박두진시인의 서첩은 이번 전

시를 위해 박 시인의 부인이 특별히 빌려주었고, 수필가 전숙희씨도 소장 도자기 십여점을 선보인다. 또 구상, 김남조, 김우중, 김화영, 최인호, 이외수, 박범신, 함해련, 장석남씨 등 시인과 소설가들이 새로 작품을 기증해 문인들의 독특한 시각을 엿보게 한다.

장르별로 살펴보면 서예 작품은 한

용운, 이광수, 정지용, 김동리, 박두진, 박종화, 서정주 등 19인의 친필이 담긴 서첩과 병풍이, 그림은 오영수, 한무숙, 손소희, 김상옥, 조병화, 어효선, 김승욱, 이재하, 강석경, 김화영 등 20인의 작품이 전시된다. 또 유진오, 김동리, 서정주, 전광용, 정한숙, 정비석, 이어령, 이호철, 최일남, 김병중 등 26인이 만든 도자기가 출품된다. 김광균, 박재삼, 박경리, 박완서, 최인호 등 17인의 국내작가와 게오르규, 루이제 린저, 이오네스코, 로브 그리에 등 외국 문인의 육필도 볼 수 있다. 023379-3182

이은자 기자 eewell@buddhaga.com

輪法大轉

小海

◇만해 한용운 스님의 필적.



◇이외수, 박범신, 김성동의 공동작품.



춤과 소리로 만나는 '심청'

김매자-안숙선 협연

20일까지 LG아트센터

명무(名舞) 김매자씨와 명창(名唱) 안숙선씨가 만나 새로운 울림을 만들어냈다. 창무예술원 이사장 김씨와 국립창극단 예술감독인 안씨가 18일~20일까지 서울 역삼동 LG아트센터 무대에 올리는 '심청'이 바로 그 울림이다.

'춤으로 듣는 소리, 소리로 보는 춤'이라는 부제를 단 이번 공연은 다양한 장르에서 여러 차례 재해석하여 무대화되어 온 바 있는 우리 고전 <심청전>을 판소리와 창작춤이라는 이질적인 장르간의 조화와

충들로 빛어낸 예정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이번 완창 판소리 심청가와 창작춤의 만남은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고유한 우리 예술인 판소리를 보편적인 세계어인 춤으로 그려내어 공감의 폭을 넓히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심청전 속에 담긴 인간의 보편적 심성인 효를 인류 공통의 언어인 춤과 소리로 표현해내고, 무용이나 창극의 서사적 구조를 벗어나 이미지 위주의 자유로운 전개방식을 통해 새로운 예술장르로서 우리 전통문화를 되살려보자는 의도도 가지고 있다. 02766-5210

이은자 기자

통도사 박물관 '경주 남산 사진전'

자연과 조화이룬 탐-불상-절터

경주 남산은 불교미술의 보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4개의 계곡에 147개의 절터, 106분의 부처님, 82기의 탐, 14기의 왕릉 등이 자연과 절묘한 조화의 세계를 연출해 내는 곳이 바로 남산이다.

20여년간 사찰을 비롯한 우리 전통건축을 촬영해 온 사진가 박근재씨는 그런 남산에 매료되어 수년간 남산을 오르내리며, 신라인이 꿈꾸었던 이상세계와 숲의 흔적들을 카메라에 담았다.



◇신선암 마애관음보살상.

통도사성보박물관이 특별기획초대전으로 마련한 박씨의 '경주 남산 사진전'은 22일~10월 8일까지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박씨는 신선암 마애관음보살상, 봉화굴 칠불암, 용장사지 삼륜대불, 탐골 마애조상군, 용장굴 대연화 등 3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055382-1001

불교문학 거장 김달진 문학제

22·23일 진행 생가 등서

지난 1989년 작고한 불교계 시문학의 거장 월하(月下) 김달진 선생을 추모하는 제5회 김달진 문학제가 22·23일 고향인 진해 생가를 중심으로 시민회관과 경남문학관에서 열린다.

경남시사랑문인협회와 김달진문학제추진위원회, 경남시사랑문인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22일 경남문화관과 시민회관 공연장에서 문학심포지엄, 제1회 시낭송 페스티벌, 제3회 진해



사랑 청소년시 낭송대회 등으로 진행된다.

23일에는 진해시 웅동 김달진 선생의 생가에서 추모행사가 열리고, 전국 초·중·고교생이 참가하는 백일장이 개최된다.

특히 올해 첫 행사로 열리는 시낭송 페스티벌은 '시인 만세'를 주제로 첨단 멀티미디어를 이용, 시와 음악 무용 등이 만나는 이색 행사로 진행된다.

오페라 '직지' 11월 재공연

지난해 청주시 문화사업단이 주축이 돼 선보였던 창작 오페라 '직지'가 오는 11월 13일과 14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재공연된다.

<직지심체요절>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연은 서울에 이어 11월 17일, 18일 청주 예술의전당에서도 이어진다.

청주시 문화사업단은 현재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를 기념하기 위해 일본 내에서의 공연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학평론가

불교 TV가 정성들여 준비한 삼베명품전

孝道佛事



1,460,000원

극락왕생복 특별할인가 (남·여) 각 1,120,000원
스님들의 수의도 갖고 있습니다.



수분흡수와 방습기능은 일반면의 10배, 무좀이나 화상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30,800원

삼베양말 특별할인가 (남·여) 각 1set(6족) 20,000원



26,800원

삼베목수건 특별할인가 1개 10,000원 / 크기 24cm(너비)x262cm(길이)

삼베목수건은 식물성섬유와 동물성섬유의 장점을 살려 제작해 삼베목수의 사각사각한 느낌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불교텔레비전주식회사

서울마포구 마포동 418 금호전기빌딩
대표전화: 02-3270-3300 팩스: 02-3270-3498



• 불교TV 후원의 전화 : ARS(02)700-1032(한 통화에 2,000원의 후원보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불교TV 시청 방법 : 전국 각 지역의 종합유선방송(SO)에 연락하여 신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주문전화(불교TV사업부)

02-3270-3366~7